

## 민주시민 아카데미 월레나눔강좌 진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11년 4월부터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공유하고자 '민주시민 아카데미 월레나눔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이 나눔강좌는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통해 현실의 삶에서 부딪히는 의문과 고통을 성찰하고 치유하는 장이 되고자 마련되었다. 매월 첫 번째 주 첫 번째 평일에 열리는 이 강좌는 참여하는 강사 대부분이 자신의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무료로 나누는 능력기부형태로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다과 등 나눔 강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기념사업회 직원들의 십시일반 기부로 이루어진다.

지난달 1일 개최된 첫 강좌는 윤명철 교수(동국대, 역사학)가 "역사 속에서 본 통일문제 - 고구려의 성장과 멸망모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직접 땀목을 만들어 역사 속에 화석화되어 있던 고대 바닷길을 몸소 증명해 보인 것으로 유명한 윤 교수는 고구려사와 동아시아 해양사를 전공한 이 분야의 전문가이다.

먼저 해방 이후 실증 사학과 고증사학이라는 역사학계의 주도적인 분위기에 대해 말문을 연 윤 교수는 실증과 고증을 말하던 기존 역사학계의 주류적인 분위기가 남긴 연구 성과가 지금에 와서 맞는가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출발 자체가 일본 식민지배와 연관되어 있는 실증, 고증 사학을 비판했다.

우리 민족사에서 통일에 가까운 나라를 고구려로 설정, 지향점으로서 고구려를 전제로 하여 강의를 이어간 윤 교수는, 강의 내내 유기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여기서 유기체는 문화능력, 사회시스템, 기술력 등이 분열되면 그것을 본능적으로 복원하려고 하고 파손된 부분은 복구하려고 하며 끊임없는 자기복제를 시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통일이 바로 그런 것으로 설명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방 이후 한국 역사학계의 지배적인 분위기가 우리의 능력을 비하하는 방향으로 흘렀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윤 교수는 우리 민족은 대단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패배의식이나 열등감에 빠지지 말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윤 교수는 안시성에서 벌어진 고구려와 당과의 전투를 예로 들며, 고구려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유의지를 잊지 말 것을 당부하며, 1시간이 넘게 이어지던 강연은 끝을 맺었다.

다음 나눔강좌는 5월 2일 저녁 7시 민병석 전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이 '국제정치체제 변화에 대한 남북한 대응 평가'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로 사업회 홈페이지([www.kdemocracy.or.kr](http://www.kdemocracy.or.kr))에서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글 · **나동현** <희망세상> 청년인턴기자)

## 풀뿌리운동 활동가 교육을 마치고

\* 사업회는 지난달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동안 경기도 파주 흥원연수원에서 풀뿌리운동 활동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산은 푸르러야 되고 강물은 흘러 가야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듯이 세상의 모든 일을 순리대로 정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진다 면 역할에 따라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함께하는 공동체의 숲속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본다.

그동안 나만의 철학으로 실천하며 살아왔던 6대 4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몇 년 전 어느 모임에서 당신의 삶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 질문을 받고 이런 대답을 했었다. 6대4의 원칙입니다. 그러자 주변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그 원칙이 뭐냐고 반문했다. 언제부터라고 규정지어 이



야기할 수는 없지만 늘 내가 조금 더 양보하면 상대가 편할 것이라 생각해왔다.

한 사례를 소개한다면 신혼 초에 이들과 어떤 식품을 사서 나누어 먹기로 하였는데 분명 똑같이 나누었는데도 한 친구가 자기 것은 약간 적다면서 화를 내는 것을 보고 망설임도 없이 내 뒤통에서 그 친

구를 더 주었다. 그것을 받은 친구가 흐뭇해서 돌아가는 뒷모습에서 욕심 많은 친구가 아닌 순박한 이웃의 따뜻함을 느꼈다.

오려려 내가 더 많이 가진 것만 같은 묘한 감정에 빠져들었던 그 순간을 잊지 않으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늘 양보하고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비우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 왔다.

항상 10개의 물건을 단둘이 나누게 될 때 상대가 누구든 또한 어떤 물건이든 상관없이 상대에게 6개를 주고 나는 4개를 가졌는데 6개를 가져가게 된 상대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는 없지만 늘 내가 더 많이 가진 것만 같은 착각을 느낄 만큼 내 가슴은 뿌듯했고 더 부자인 듯 여유로워졌다.

어떤 지인들은 바보 같은 삶이라며 욕심도 가져보라 하지만 아직도 많은 것을 얻으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에게 되묻곤 한다. 명확한 답은 없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나누면 뿌듯하고 양보하면 편안하다는 나만의 진리를 지켜나가고자 6대4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다.

이런 삶도 많이 부끄럽고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며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 풀뿌리운동 활동가 교육이었다.

“마을이 세상이고! 사람이 희망이다! 당신의 이름은 풀뿌리.”

풀뿌리운동 활동가 교육장 정면에 부착된 이 구호를 보며 그래! 바로 이거야! 마음속으로 맞장구치며 주변을 살펴봤다. 모두들 상기된 표정의 첫 만남! 사회활동의 새내기부터 노련함이 엿보이는 활동가 등. 이 기회를 놓칠까 노심초사했던 내 자신의 쑥스러움을 잊은 채 어느새 나는 이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었다.



뭔가 다른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아, 가져갈 수 있을 것이 많을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오랜만에 만들어보는 나의 이력서를 어떻게 꾸밀까를 고민도 하지 않은 채 단점을 크게 썼다. 나는 음치라고, 그리고 나 어떻게 하나고.

이력서에 나의 장점을 쓴 것이 아니라 단점과 첫 느낌을 쓴 것이다.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함을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는 이력서! 그리고 첫 느낌은 연령 차이가 많아 과연 내가 이 그룹 속에서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을까를 걱정하며 ‘어떻게 해’ 라고 한 것이다.

4박5일간의 교육일정은 나를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한 것 보다도 나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준 것 같다.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같이 해야 한다는 틀로 전환시켜주었고 내가 양보하고 버림으로 인하여 모두가 함

께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의 기본 의미를 다지기도 했다.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함을 배우면서 그동안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 했었음을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넷물이 모여서 강이 되고 강물이 모여 바다가 되듯이 작은 모임에서 발생하는 의견들이 집합되어 큰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 모체가 된다면 그가 바로 상향식 민주주의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풀뿌리 활동가들의 역할은 가장 미약하고 작아 보일수도 있겠지만 이 사회에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는 믿음의 땅을 개간하는 개척자들일 것이며 작은 역할이 뿌리가 되고 큰 역할이 모델이 될 때 모두가 꿈꾸는 희망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진리를 믿으며 이 기회를 마련해준 기념사업회에 감사한다.

글 · 조복록 시인/br52j@hanmail.net

### 제51주년 4·19혁명 기념식 참가



지난달 19일 오전 10시, 서울 국립 4·19민주묘지에서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계 인사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주년 4·19혁명 기념식이 개최됐다.

국무총리의 기념사, 4·19혁명 경과 보고, 학생 추도사와 4·19 영령 추모공연이 이어졌으며 4·19의 노래 제창을 끝으로 모든 공식 기념행사는 종료되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직원도 기념식에 참석 4·19혁명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겼다.

### 〈4월혁명 사료총집〉 ‘혁명 일지’ 전자책으로 제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해 4·19혁명 5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4월혁명 사료총집〉 중 ‘혁명일지’ 부분을 예스24를 통해 전자책으로 공개했다. ‘혁명일지’ 부분은 1960년 3월부터 4월 혁명일까지를 정리한 것으로 총8개의 전자책으로 나누어 담겼다. 〈4월혁명 사료총집〉 전자책 총8권은 예스24에서 각 1,000원에 판매 중이며 전권 구입시 3,810원의 할인 쿠폰을 적용해 4,19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여기서 생긴 수익금 전액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통해 해피빈에 기부할 예정이다.

### 민주시민교육 교사연수 \_ 세상읽기



교육사업국은 지난 달 23일(토)부터 24일(일)까지 1박2일 동안 서울유스호텔 및 현대사 유적지에서 전국의 초·중등 선생님들과 함께 민주시민교육 교사연수 세상읽기 과정을 진행했다.

‘평화로 보는 현대사’란 제목으로 진행한 이번 연수는 첫 날은 현대사를 평화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생각을 확장하는 특강을 시작으로 그림책, 신문, 영화로 역사·평화·경제적인 삶을 배우는 초등 수업사례를 나눴다.

또한 일제시대 강제연행·강제노동 희생자들의 유골 발굴 사례를 통해 식민지 역사와 분단시대의 아픔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은 서울유스호텔, 명동성당, 평화박물관, 서대문형무소를 탐방하며 현대사 교양을 넓히고 평화 감수성을 기르는 다양한 이야기기를 나눴다.